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정홍근, 사무관 신민철
(044-200-2132, 2135)

이낙연 국무총리, 「메레도프」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 접견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30일(금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중인 「라시드 메레도프(Rashid Meredov)」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를 접견하고, 양국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안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- 이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우리나라와 역사·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지닌 오랜 친구의 나라이자 중앙아시아 지역 내 주요 협력 대상국임을 강조하고,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성사된 메레도프 외교부총리의 공식방한이 양국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 - 메레도프 외교부총리는 양국이 수교 이후 지난 26년간 정치·경제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, 지속적인 양국관계 강화를 위해 편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- 양측은 자본·기술 및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에너지·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

- 메레도프 외교부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 이름들을 거명하면서, 이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·인프라 산업을 포함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, 양국이 에너지·자원 분야를 넘어 협력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- 이 총리는 더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,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발전, 일자리 창출, 기업 간 협력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, 향후 경제공동위 등 채널을 통해 양국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-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, 그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계속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.
- 메레도프 외교부총리는 세계가 한반도 정세를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
 - 이어 투르크메니스탄이 유엔헌장의 원칙과 규범을 이행하는 영세 중립국으로서, 한국정부의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성공적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.
- 이번 이낙연 총리와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 간 면담은 정치, 경제,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정부의 견고한 협력의지를 재확인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.